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본 문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심은 존재물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구한 것들’ 을 주신다.
3. 하나님은 ‘구해야’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가진 자, 주시는 자의 생각>과 <구하는 자, 받는 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은 ‘뜻’ 을 펴야 하시니 ‘더 좋은 것’ 을 주신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땅의 신부의 생각>과 달리 ‘이미 정해 놓으신 뜻 있는 장소, 시대 보낸 자가 태어난 장소’ 를 주셨다.

5.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야만 만족하신다.
6.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셔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7. <생명>도 구해야, 그 생명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8. 전도해야 ‘전도를 받은 사람’도 살아나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살아나서 부활된다.
9. <많은 생명들>을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10. <기도>하며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을 이 시대에 해야 된다.
11.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니, ‘귀한 성전들’을 주셨다. 이를 알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께 감사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12. <하나님의 신부>이니, 구하라.
13. <자기 신부>가 구하면, 신랑되신 하나님은 마음 놓고 신부가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 왜? 마음대로 다 줘도, ‘신부 것’이 곧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14. 가령 도망갈 자라면 투자를 안 한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며 같이 살 자에게는 사정없이 투자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부라면, 신랑되신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 놓고 주신다.
15. <자녀권의 세계>는 ‘자녀 것’에 해당되는 것을 주시고, <신부권의 세계>는 ‘신부 것’에 해당되는 것을 주신다. <자녀>가 받는 것과, <신부>가 받는 것은 아예 다르다.
16. 하나님은 <시대 말씀>도 구했기에 주셨다. 고로 그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17. 섭리역사를 펴 나갈 때마다 사탄이 막고, 구시대인들이 막고, 모르는 자들이 막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릴 수 밖에 없었다. 마치 귀청을 울려서 잠은 못자게 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구하고 두드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두드린 것들’을 전부 해결해 주셨다.
18. 많은 생명들을 사탄이 끌고 가고 스스로 약해져서 무너질 때도, 늘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구했기에 많은 생명들을 찾게 되었다.
19. <선교하라>는 말씀은 ‘생명들을 찾으라. 찾으면 있다.’ 함이다.

20. <하나님의 신부>라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면, 신랑되신 하나님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기 때문이다.
2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리라. 찾으면, 찾게 해 주리라.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안 하면 안 된다.
22. 선생은 하나님께 구할 때, 2만 번, 3만 번씩 구한다. 어떤 것은 1년, 3년, 5년씩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해라. 다 내가 할 일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자기 할 일>은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된다.
23.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때’와 ‘시기’를 따라서 행하시니, 구하라.
24. <생명에 관한 것>도, <경제>도, <성전>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구하라.
25. <건강>도 구해야 된다. 인생을 짧게 사는 데, 건강하게 사는 데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시중을 들며 뛰고 달릴 수 있다.
26. <자기>를 ‘하나님의 신부’로 멋있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곧 ‘자기를 만드는 일’이며 ‘의의 행실’이다.

27. 만들지 않고서는 <황무지>가 ‘궁궐’ 이 될 수 없고, ‘천국’ 이 될 수 없다. <자기 영>도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신부의 영’ 으로 만들어야 된다.